

도로교통공단, 교육부, 이륜차 안전협의회(안실련)가 함께하는

이륜차,PM 사고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레터!] 보내기**

□ 기획 의도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96.2% 증가 (2017년 117건→2022년 2,396건)
- 10대 무면허 주행건수 4배증가 (2021년 3,482건→2022년 12,354건)
- 사고의 주요 대상자에 10대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안전교육이 시급한 상황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 <안전 레터>를 배부하여 안전문화 조성

□ 주요 내용

- 사업명: PM 사고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레터 보내기>
- 일정: 2023년 9월~11월
-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PM,이륜차 안전콘텐츠 배포
 - 인포그래픽과 음성캠페인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
 - 초,중고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콘텐츠 제공
 - 교육부협업으로 가정통신문과 교내방송으로 송출, 안전의식 제고
 - 사고다발 학교를 선정, 안실련과 함께 안전 캠페인 진행
 - TBN한국교통방송 주요시간대 이륜차 및 PM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제작
- 참여기관
 - 교육부, 안실련, TBN한국교통방송(이륜차안전협의회)

분 류	내 용
교육부	전국 초, 중고교에 안전레터 배부(공문처리)
TBN 한국교통방송	PM안전관련 카드뉴스 및 음성캠페인 제작 / - TBN한국교통방송 진행자(김경식, 김효진, 양상국 참여)
안실련	PM 안전 홍보 및 홈페이지 홍보, 안전교육실시

□ 향후계획

- PM전국 초중고등학교 배부 및 방송

<TBN교통방송과 교육부,안실련이 함께하는 안전레터-1호>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6가지 방법

1. 안전모와 보호대는 꼭!! 착용
2. 보행자를 배려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요
3.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탈수 있어요
4. 전동킥보드는 혼자만 타야합니다(2명이상 안돼요)
5. 차도에서는 자동차 문이 열릴수 있으니 조심 (문 부딪힘 사고 조심)
6.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요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6가지 방법

교육부와 TBN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만들기



안전모와 보호대는
꼭 !! 착용



보행자를 배려하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요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혼자만 타야합니다
2명 이상 안돼요!



차도에서는 자동차 문이
열릴 수 있으니 조심
문 부딪힘 사고 주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요